

## <지뢰찾기 시나리오>

간단한 게임 목표 : 지뢰가 없는 빈 칸을 모두 누르면 클리어

액터 : 노박구 ( 23세 / 남자 / 대학생 / 게임을 좋아하지만 지뢰찾기를 해 본 적이 없음 )

곽철용 ( 45세 / 남자 / 사업가 / 노박구의 외삼촌이자 지뢰찾기 실력자 )

2019년 7월 26일 무더운 여름, 외삼촌 철용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경기를 보기로 한 박구는 철용의 집에서 철용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다 심심해진 박구는 철용이 얼마 전에 샀던 오프라인 지뢰찾기 게임기를 발견한다. '지뢰찾기가 오프라인으로도 있어?' 박구는 지뢰찾기를 할 줄은 모르지만 한 번 해본다.

게임을 시작하니 여러 개의 빈 칸이 나온다. 뒷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박구는 아무 칸이나 하나 눌러본다. 칸이 눌린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도 박구는 게임이 이해가 안 된다. 박구는 이번에는 멀리 떨어진 다른 칸을 눌러보지만 게임오버를 당한다. '뭐야 실수 한 번 하면 끝이잖아?' 박구는 게임을 몇 번 더 해보지만 계속해서 얼마 못 가 게임오버를 당한다.

박구 : 뭐야? 대체 어떻게 지뢰를 찾으라는거야!? 힌트라도 주지! 아오!!

철용 : 박구야 나 왔다. 오, 그거 하고 있었네?

박구 : 아 외삼촌. 오셨어요? 이거 잘하세요?

철용 : 내가 지뢰찾기를 열일곱에 시작을 했다. 그 나이 때 이거를 시작한 애들이 100명이라..

박구 : 아 알았어요! 고수신가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용 : 뭐? 아 지뢰찾기가 튜토리얼 같은 게 없지? 삼촌이 알려줄테니까 잘 봐.

왕년에 오락에 빠져 살던 적이 있었던 철용. 조카에게 설명도 해주고 지뢰가 없는 칸을 하나하나 일일이 누르다보니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쉽게 게임을 클리어한다.

박구 : 오.. 삼촌 진짜 잘하시네요?

철용 : 나한테는 너무 쉬워서 조금 재미없더라. 더 어렵게는 못 하나?

박구 :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철용에게 지뢰찾기를 하는 방법을 배운 박구는 이제 무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게임 클리어까지 2개의 빈 칸만을 남기고 박구는 당황한다.

박구 : 엥? 여기서 대체 어디에 지뢰가 있어요??

철용 : 흠.. 지뢰찾기도 결국 째려야 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지.. 좋아 왼쪽이다!

박구 : 게임 오버네요? 거의 다 깬데.. 뭐예요 외삼촌! 왼쪽이라면서요.

철용 : 묻고 다시 가!

오기가 생겨버린 박구는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꼭 클리어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신중하게 게임을 진행하던 박구. 게임 클리어가 절반 정도 남았을 즈음 아까와 같이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하지만 이번에 박구의 운명은 달랐다. 지뢰가 없는 칸을 눌렀고 게임이 술술 진행된다. 그러나 정신없이 게임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다.

철용 :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야 박구야! 빨리 가자!

박구 : 네? 이번엔 무조건 깨는데.. 이미 늦은거 아니에요?

철용 : 무슨 소리야! 우리 형 축구하는 거 봐야지!

박구 : 아쉽다.. 이거는 게임 저장할 수는 없어요?

철용 : 그런 거 없어. 빨리 와!

박구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철용과 축구경기장으로 향한다. 경기장에 도착한 박구와 철용은 큰 기대를 가지고 경기를 관람한다. 경기는 나름 재밌지만 그들이 보고싶었던 선수는 단 1분도 뛰지 않는다. 결국 그대로 경기는 끝나고 철용과 박구는 실망감만 안고 집으로 간다. 철용은 비싸게 구매한 티켓인데 이게 뭐냐며 화를 내고 박구는 허탈함에 아까 했던 오프라인 지뢰찾기 게임이 생각난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게임이나 끝낼걸..'